

도 협 소 식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1971년 2월 20일 오후 2시

장 소 : 도협 사무국

참 석 : 권재식, 김경일, 김덕훈, 김두홍, 김석순, 김윤배, 김종문, 박계홍, 백린, 오영환, 윤구호, 이문원, 이봉순, 이재철, 이춘희, 이흥구, 정병완, 조재후, 최근만, (감사) 김중희, 신학균, (위임) 박경원, 박승하, 손성립, 심재경, 최도철, 한창영(가나다순)

- 안 건 1. 사무국 보고
2. 제3회 한국도서관상 수상자 인선 보고
 3. 1970년도 사업실적보고
 4. 1971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
 5. 1971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6. 1971년도 예산안 심의
 7. 단체회원 등급조정 및 회비인 상안심의
 8. 신입회원 가입승인
 9. 기타

성원보고 : 이사 35명중 참석 22명, 위임 6명 계 28명으로 성원됨을 최근만 사무국장이 보고 하다.

최근만(사무국장) 회장님께서 갑자기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되어 이사회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실 임시의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이봉순 이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함—

의장(이봉순) 회의 진행도 미숙한 제가 임시의장을 맡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던 먼저 안건 순서에 따라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사무국 보고

박대권(총무부장)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제2차 이사회 이후의 사무국보고를 하다.

가. 제회의 보고

- 1) 제12차 선정분위(12.28)
- 2) 제2차 분위원장회의(12.28)
- 3) 표창심사위원회의(2.5)
- 4) 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에 따른 의견 청취 좌담회(2.12)
- 5) 제5차 행정분위(2.16)

나. 1970년도 하반기 문교부 감사 실시(1.20)

다. 1970년도 하반기 자체감사 실시(1.29)

라. 문교부 197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2.16)
마. 강주진 회장 호주에서 개최된 동양학자회의에 참석 후 귀국(1.23)

바. 이봉순 이사 호주에서 개최된 동양학자회의에 참석 후 귀국(2.9)

사. 이춘희 이사 피츠버그 대학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코 귀국(1.29)

아. 장일세 이사 세미나 참석차 호주로 출발(1.13)

자. 피츠버그대학 도서관학과 Jay E.Daily 교수 내국(1.18)

차. 하바드엔칭 도서관장 오문진씨 내국(1.26)

최근만(사무국장) 지금 보고된 가운데 임시의장님께서 호주에 다녀오신 것이 있는데 잠시 세미나에 대해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동 찬성하다—

의장(이봉순) 이번 모임은 내년이 100년이 되는 해로 “동양”을 극동, 중동, 동남아시아로 나누어 이를 주제로 하여 각국의 학자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이번에는 1,200명이나 되는 각국의 학자들이 호주국립대학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 도서관 관계가 포함된 것은 Ann Arbor에서 개최될 때 부터로 이번이 두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이번에 다룬 문제는 도서관인의 교육문제, 동양학 연구를 위한 자료 및 도서관인의 구성에 관한 도서관학 교육문제 자료, 서지, Inter-Library-Loan 문제등을 가지고 언어, 주제에 대한 지식, 기술 및 운영문제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논의된 결과 교육을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도록 하자고 하여 몇나라의 대표를 준비위원으로 하고 위원회를 만들도록 결의하였습니다. 회의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사무국 보고에 의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건 2. 제3회 한국도서관상 수상자 인선 보고

의장(이봉순) 제3회 한국도서관상 수상자심사결과를 김석순 이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석순(이사)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표창심사 결과를 보고하다.

오영환(이사) 금년도 수상자를 보면 각 관종별로 균등하게 되지 않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수상자의 폭을 넓혀 각 관종별로 한명정도는 수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계홍(이사) 그렇게 되면 도서관상의 의의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의점으로는 한분에게라도 좀 더 효과적일 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장시간 토의한 결과 도서관 상 시상의 방법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사무국에 알리도록 하고 도서관상 수상자의 결정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준을 받도록 규정을 고칠 것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의장(이봉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성하시는 뜻에서 박수로 동의해 주십시오.

—일동 박수로 찬성의 뜻을 표하여 통과시키다—

안건 3. 1970년도 사업실적보고

박대권(총무부장) 배부된 사업실적보고서에 의거 상세히 보고하다.

의장(이봉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철(이사) 보고서함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고서 편집상에 있어서 임원명단과 회원명단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한군데로 몰아 놓았으면 좋겠고 또 회원명단 배열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게 되면 Directory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일(이사) 협회의 사업이 날로 발전하고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서 편집에 있어서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 실적과 비교할 수 있는 표를 삽입하여 편집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봉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건 4. 1970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

박대권(총무부장) 배부된 결산보고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다.

김중희(감사) 회계감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총평을 보고하다.

조재후(이사) 결산 및 회계감사는 문교부의 감사도 받았고 또한 자체감사도 거쳤으니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이봉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일동 박수로 통과하다—

안건 5. 197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박대권(총무부장)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하다.

〈보조사업〉 ①독서주간행사 ②도서관통계 발간사업 ③도협월보 발행사업 ④ 도서관학총서 및 번역서 발간사업 ⑤한국서지사업 ⑥선정도서사업 ⑦국제교류 활동사업.

〈자체사업〉 ①전국도서관대회 ②도서관 주관 행사 ③배부사업 ④지구협의회 및 부회 보조사업 ⑤표창사업 ⑥조사연구사업 ⑦자료실 운영사업 ⑧보급운영사업.

최근만(사무국장)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71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다.

의장(이봉순) 회의도중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간 약속이 있어 회의 진행을 더 맡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임시 의장을 선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위원장이신 이춘희 선생님께서 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의장(이춘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영환(이사) 보조사업을 보면 출판물 발간사업에 비중이 된 느낌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일(이사) 총서와 번역서 발간사업에 있어서 도서관에서 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것 부터 먼저 발간하였으면 합니다.

의장(이춘희) 총서 및 번역서 발간사업은 1968년부터 5개년 계획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여 사무국에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토의 끝에 1971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다—

안건 7. 단체회원 등급조정 및 회비 인상안 심의

최근만(사무국장) 단체회원의 등급조정과 회비인상 문제는 지난 2차 이사회에 상정되었다가 다시 행정분위에 재검토를 의뢰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분위에서는 2월 11일 회의를 소집하여 신중히 논의한 결과로 나온 최종 안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회비 인상 사유와 액수를 설명하다.

김경일(이사) 지난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되어 안의 원칙이 결정되었고 또 행정분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는 회비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여 사무국에서 제출한 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논의 끝에 일동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의장(이춘희) 다음 안건은 신입회원 입회승인입니다. 제생각으로는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것 같으니 회원으로 입회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일동 신청자 전원의 입회를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의장(이춘희) 기타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가지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이사님께서 의견이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동 폐회할 것을 동의하다—

이번 이사회로 여러 분의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협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할 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일 시 : 1971년 2월 22일 오후 7시

장 소 : 도협 사무국

참 석 : 민윤기(代), 권중협, 박승하(代), 김덕훈, 김종문, 손성립(代), 박치욱, 박희영, 강주진(代), 손성우, 이창세(代), 한창영(代), 김계동(代), 우대섭, 원종린, 윤구호, 오영환, 이상조, 이재철, 이철규, 이춘희, 이흥구, 채예석(代), 박경원(代), 최근만, 한상완.

안 건 : 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선출에 관한 건
성원보고 : 이사 33명중 참석 26명 불참 7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최근만(사무국장)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식(대구시립도서관) 한국의국어대학 도서관장 이상조 선생을 추천합니다.

—일동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의장(이상조)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셔서 모두들 피로하시겠지만 나머지 회의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본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2년동안 본회를 대표하여 일을 맡아주실 회장 1명과 전무이사 1명, 상무이사 7명(당연직 상무이사 2명 포함)을 선출하여야 됩니다. 선출방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경원(조재후代) 회장을 받들어 임원들이 일하는 것이니 회장부터 선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찬성—

의장(이상조) 그러면 회장부터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경원(조재후代) 민간단체의 회장을 맡으신 분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힘을 쓰시는 분이여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 도서관계 발전을 위해 힘쓰실 능력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을 추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전임 강주진회장을 추천합니다.

원종린(이사) 전임 강주진회장은 한국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또한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강회장님의 무거운 짐을 더는 뜻에서 한국외국어대학도서관장이신 이상조 선생을 추천합니다.

김종문(이사) 지명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단축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회장을 선출하는데는 사전의 토의가 필요할 것 같고 도서관계의 보다 발전을 위해서는 좀더 많은 토의를 하여 방법을 찾은 후 추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성우(이사) 제 의견으로는 회장으로 추대할 분을 세분정도 무기명 투표로 천거하였으면 합니다.

—일동 찬성하다—

의장(이상조) 그러면 무기명으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강주진, 이창세, 이상조 세분이 천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이상조) 여러 이사님들께서 추천하신 세분에 대하여 토의를 하기위해 잠깐 휴회하겠습니다.

—5분간 휴회—

의장(이상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손성우(이사) 추천된 분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선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한상완(이사) 전임 강주진회장의 그간의 업적과 조금전 투표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다시 투표를 할 필요 없이 강주진 선생을 만장 일치로 추대할 것을 정식으로 개의 합니다.

의장(이상조) 동의와 개이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장시간 토의한 끝에 무기명투표로 선출할 것을 결의하고 투표를 실시하다—

의장(이상조) 투표결과 대다수의 찬성으로 강주진 전임회장이 다시 회장으로 추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무이사를 선출하겠습니다.

박희영(이사) 조금전 투표 결과 이창세선생께서 많은 분의 추천을 받았으므로 전무이사로 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의장(이상조) 회장과 전무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다

음은 상무이사 선출인데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오영환(이사) 이사님들 간에 약간의 토의할 시간을 가진 후에 선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찬성하다—

의장(이상조) 그러면 잠간 휴회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사님들간에 협의하여 결정된 상무이사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이 홍구 종로시립도서관장

대학교서관 이 상조 한국의국어대학교서관장

학교도서관 서 장석 경기고등학교장

특수도서관 김 덕훈 원자력연구소도서관실장

개인 이 춘희 성균관대학교도서관학과교수

의장(이상조) 밤늦게 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유능한 분을 회장단으로 모시게 되었음을 여러분과 같이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며 우리들 모두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적극협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제1차 이사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선정분위 회의록

일 시 : 1971년 2월 12일 오후 5시30분

장 소 : 도협 사무국

참 석 : 임중순, 손정표, 이백준, 정을성

결의사항 : 「선정도서목록 N」 발간에 대한 최종 편집을 끝냄.

사 무 국 일 지

- 2월 12일 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에 따른 의견청취 좌담회(오후 3시)
- 16일 제5차 행정분위 개최(오후 3시)
197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20일 제3차 이사회 개최(오후 2시)
- 22일 1971년도 제17차 정기총회(1일)
- 23일 1971년도 제17차 정기총회(2일)
- 25일 1970년도 감사원 감사 실시

신 입 회 원

<단체회원>

- 정화여자중상업고등학교도서관
- 인천상공회의소도서관

- 부산여자실업고등전문학교도서관
- 경북공업고등학교도서관
- 충천공공도서관
- 대전한국조폐공사연구소도서관

<개인회원>

- 윤 호 림 (정화여자중상고도서관)
 - 황 의 하 (연세대학교도서관)
 - 송 병 길 (의무부도서관)
 - 문 성 록 (대구신학교도서관)
 - 윤 학 구 (국립중앙도서관)
 - 황 수 길 (한일은행도서관)
 - 장 정 남 (한국과학기술연구소도서관)
 - 김 용 술 (순천시립도서관)
 - 안 정 애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 정 박 문 (한국의국어대학교서관)
 - 필 문 호 (충천제일고등학교도서관)
 - 곽 태 원 (마을문고본부)
 - 고 용 수 (마을문고본부)
 - 권 재 식 (대구시립도서관)
 - 김 중 석 (동국대학교서관)
 - 박 상 균 (동국대학교서관)
 - 김 용 결 (동국대학교서관)
 - 최 순 자 (이화여자대학교서관)
 - 김 인 호 (한국신탁은행도서관)
 - 김 기 태 (국회도서관)
 - 이 진 욱
 - 백 린 (서울대학교서관)
- Rachel P. Richardson (Library Service Center)

참 고 자 료

- Special Libraries (1970.10, 11)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 Information bulletin (vol. 61 No. 50) Library of Congress
-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vol. 19. No. 11) A.L.A.
- Canadian Library Journal (1970. Nov-Dec) C.L.A.
- American Libraries (1971. 1) A.L.A.
- Unesco Chronicle (1970.12) Unesco
-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1971. 2) College & Research Libraries.
-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1970 秋季) The State University, N.J.
- The Quarterly Tournal (1971 春季) Library of

해 외 소 식

—Library News Around the World—

듀이 18판

듀이십진분류표 18판이 금년 여름 출간을 목표로 현 재 미국의 Forest Press社에서 인쇄중에 있다. Prepublication을 받아 본 관계자들은 18판이 17판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평을 하고 있는데, 수학, 법률, 경제, 핵물리, 생물, 의학, 역사, 지리분야를 위시해서 새로이 전개된 항목도 많다고 알려졌다. LC는 18판의 출간에 앞서 금년 1월 1일부터 듀이 18판의 번호를 모든 카아드형목록(LC printed card), 책자형목록(NUC)과 테이프형목록(MARC tape)에 사용하고 있으며, British Museum도 같은 날로부터 BNB에 이를 사용하고 있다. —*Libr. Assn. Rec.*, 72(12) Dec. 1970—

「마이크로펫시」 NUC

Washington D.C.에 있는 NCR/Microcard Editions社는 LC의 *National Union Catalog*, 1953~1957을 마이크로펫시(microfiche)로 간행하였다. 同社는 1898~1952년까지 3백만장의 카아드가 담긴 233권의 NUC도 마이크로펫시物로 작년말까지 간행을 완료하였다. —*Unesco Bull. Libr.*, 24(6) Nov.-Dec. 1970—

영국의 도서주간

영국 독서연맹(National Book League)은 「도서관주간」의 후신으로 「도서주간」(National Book Week)을 창설키로 하였다. 그런데 제1회 전국도서주간은 1972. 4. 22~4. 29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Libr. Assn. Rec.*, 72(12) Dec. 1970—

국제 도서관 봉사업무 기준

IFLA는 최근 Unesco와의 계약에 의거 각국의 각종 도서관을 위한 봉사 업무의 기준(Standards for Library Service)을 내놓았다. IFLA가 법제계적으로 적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이 기준은 특히 개발도상국가들 위해 마련한 것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量的인 기준은 지역에 따라 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Unesco Bull. Libr.* 24(6) Nov.-Dec. 1970—

IFLA 모스크바 총회

IFLA 36차 총회가 1970. 8. 28~9. 7까지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서 「교육의 한 활력소로서의 도서관」이란 주제아래 IFLA회장 겸 벨지움 왕립도서관장인 H. Liebaer氏의 개최사를 필두로 개최되었다. 700명이 넘

는 각국 대표와 참관인이 참가한 소련서의 총회는 이스라엘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국가의 대표들이 정치적 이유로 입국사증을 얻지 못해 IFLA 정책과는 달리 참석치 못했으며, 상당수의 대표들과 참관인들도 회의가 임박해서야 사증을 받았다는 불평이 터져 나왔었다. 동시 통역도 소련어로 일단 하고난 다음 기타 국어로 했기 때문에 회의 참가자들의 고통이 컸다는 뒷얘기가 있었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제국의 대표는 이번 총회에 한사람도 참석치 않아 아직도 서방단체의 성격을 띄고 있는 IFLA의 1973년 총회에서는 말타(Malta)와 터키가 각각 사무국 국가로 입후보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1955년에 가입하였다. —*American Libraries*, 1(11) Dec. 1970. *Library World*, 72(845) Nov. 1970. *WLB*, 45(3) Nov. 1970—

ALA의 「ACONDA」와 「ANACONDA」

「ALA의 새로운 진로에 관한 활동위원회」인 ACONDA(Activities Committee on New Directions for ALA)와 「ACONDA의 업무에 관한 임시위원회」인 ANACONDA(Ad Hoc Council Committee on ACONDA)는 각각 ALA의 「민주화와 재조직」에 관한 문제를 연구·조사하여 지난 1월에 있었던 ALA동계총회에 제출하였는데 양 보고서의 내용은 *American Libraries*, 1971년 1월호에 소개되어 있다. ANACONDA의 건의 사항중 주요골자는 첫째, 도서관직 교육·훈련, 직원 채용, 직원활용과 직원의 권익문제를 Office of Library Manpower를 신설하여 전담토록 할 것과 둘째, ALA의 장기목표 달성에 필요한 상임기획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American Libraries*, 2 (1) Jan. 1971—

間宮不二雄氏 別世

晩年に 지냈던 日本圖書館協會의 顧問으로 보다는 초기의 「青年圖書館聯盟」기관지 圖研究和 후기의 圖書館大辭典 및 「間宮商店」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間宮不二雄氏가 去年 10月 24日 享年 80才를 一期로 別世하였다. 生存時, 圖書館發展에 진력한 공적으로 日本政府로부터 1961년에는 藍綬褒章을, 1966년에는 勳四等瑞寶章을 받았으며, 極東 三國에서 圖書館學 紀念論文集으로는 最初인 間宮不二雄先生喜壽紀念圖書館學論文集(もりきよし編, 東京, 1970)을 그의 門下生들로부터 헌정받았다. 間宮氏의 서거는 仙田正雄氏의 말과 같이 「昭和時代 日本圖書館史의 歷史의 人物이 사라진 셈이다.」 —*圖書館界*, 22(5) 1971年 1月. *圖書館雜誌*, 65(2) 1971年 2月—

(Comp. by B.M.R.)



제7회 도서관주간 실시

본 협회에서는 4월 12일부터 18일일까지 일주일동안을 제7회 도서관주간으로 결정하고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963년도부터 독서가 국민 개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도서관이 국민의 교육과 사회생활에 주는 작용이 무엇인가를 일반 국민에게 인식시켜 도서관 사업을 일대 사회운동으로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본 주간은 문교부, 문화공보부, 내무부의 후원과 각종 보도 기관의 협찬을 받아 신문, 라디오, 텔레비존 좌담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가 실시될 것이다.

서울특별시립동대문도서관 개관

지난 3월 31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어린이 놀이터에 서울특별시립동대문도서관이 준공 개관되었다.

공공도서관은 사회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시민의 교육장으로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 개관을 한 동대문도서관은 서울특별시가 예산 7천5백만을 들여 지난 67년 5월 16일 착공하여, 70년 10월 30일 그 일차준공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부지 300명에 건평 594명으로 준공하여 이날 개관을 한 것이라고 한다.

전북대학교 도서관 신축

전북대학교는 문교부로부터 5천만원의 시설비를 지원받아 1천평규모로 현대식 도서관을 건립키로 하고 그 착공을 위해 지난 3월 18일 유영대 총장의 지휘로 신축도서관의 설계를 시작, 년내에 완공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선본해제, 고서목록 발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고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고서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지학계의 자문을 받으면서 고서의 수집에서 해제에 이르는 전반적인 서지작업을 전개 그 결실로 고서목록 제1집과 선본해제 제1집을 간행하였다고 한다.

고서목록은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중 한국본 및 한국관계 고서를 가려내어 주제별로 철학, 경학, 제자, 술수, 종교, 교육, 사회, 정치, 법률, 경제, 어학, 문학분야를 수록한 분류목록으로 고려말부터 1945년까지 간행된 18,371책(6,229부)의 고서를 판본, 사주개선, 행자수 등 중요한 서지사항과 청구번호를 표시해 준 고서이용의 참고도서이다.

선본해제는 국립중앙도서관 고서 16만책중 임란이전(1,592)의 한국본, 명만력(明萬曆) 이전의 중국본(1,573) 원화(元和, 1,615)이전의 일본판본, 그 이후의 명인들의 수사본, 수택본 등의 희귀서중 600종의 선본을 선택하여 내용과 판본등을 해제하여 분류순으로 집성한 것이다.

이들 두책은 서지학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속하여 발간할 것이라고 한다.

鄭 駝 謨 譯 編

國際的 標準에 따른 學術論文作成法 準則

中央大學校圖書館學科 1971.

34p. 21cm 값 150원

아직까지 무원칙하게 발표되어 온 학술논문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나 준칙을 알리기 위해 UNESCO에서 소개한 「出版을 위한 科學論文作成法指針」과 「出版을 위한 著者抄錄作成法指針」 등 국제적 준칙중 학술논문을 작성하는 저자에게 필요한 사항인 「學術論文作成法 準則」 「著者抄錄作成法 準則」 「書誌의 參照作成法 準則」으로 나누어 원문과 함께 수록해 주었다.

1971년 3월 25일 인쇄

1971년 3월 31일 발행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서울특별시중구소공동6 (국립도서관 구내)

<월간> 도 협 월 보

제12권 제4호

발행인 강 주 진
편집인 최 근 만

전화 (22) 4864·5613

진체서울 3753

사서함 서울국제 2041

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라-29

인쇄인 삼성인쇄주식회사